

2010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언어 영역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듣 기]

〈1번〉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 한 편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미국 애틀랜타의 한 야구장에서 구두를 닦는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밝고 명랑했지만, 때때로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또래 아이들을 보면 항상 부러운 생각이 들면서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왜 가난하게 태어난 거지? 언제쯤 나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야구장 밖에서 구두를 닦으며 열심히 살아가던 이 소년에게는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구 선수들이 친 공이 하늘 높이 날아오를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구두를 닦으러 온 야구 해설가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야구공은 어떻게 시원한 포물선을 그리며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소년의 질문에 해설가는 미소를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야구공을 자세히 살펴보면, 운동 실로 케맨 상처로 가득하단다. 바로 그 상처 때문에 보통 공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간단다. 이제 알겠니?”

소년은 해설가의 말을 들은 뒤 자신의 불우한 환경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디딤돌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제 7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코피 아난입니다. 그는 전 세계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달래는 데 온 힘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1. [출제의도] 이야기를 듣고 교훈 파악하기

이야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 소년이 운동 실로 케맨 상처로 가득한 야구공이 그 상처 때문에 보통 공보다 더 높이, 멀리 날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시련과 역경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

〈2번〉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을 인지하고 떠올릴 수 있게 표현한 이미지를 아이콘이라 합니다. 아이콘을 활용하면 적은 정보량으로도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콘 중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유사 아이콘과 예시 아이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사 아이콘은 표현하려는 대상과 시각적으로 닮은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불구불한 길이 앞에 있음을 표시하는 기호는 꺾은선과 같은 이미지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것이죠. 반면 예시 아이콘은 표현하려는 대상에서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물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항을 나타내는 기호로, 공항에서 떠올릴 수 있는 여러 사물 중에서 비행기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이죠. 유사 아이콘은 단순하고 구체적인 대상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데 효과적이며, 예시 아이콘은 복잡한 대상을 쉽게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럼 다음 다섯 개의 아이콘 중 예시 아이콘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볼까요?

2. [출제의도] 강연에 설명된 개념 적용하기

유사 아이콘은 표현하려는 대상과 시각적으로 닮은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이며, 예시 아이콘은 표현하려는 대상에서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물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식당’ 이미지는 식당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인 나이프와 포크를 통해 식당을 표현한 것이므로 예시 아이콘에 해당한다.

〈3번〉 이번에는 선생님과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학생 : 어? 여기 너무 미끄러워요. 이게 뭐죠? 이끼네요. 전 이런 이끼가 싫더라고요. 별로 도움이 되는 곳도 없는 것 같고.

생물 선생님 : 이끼가 별로 도움이 되는 곳이 없다고? 그건 이끼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말이야.

여학생 : 그러면 이끼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생물 선생님 : 물론이지. 흙이 무너지거나 공사로 인해 맨땅이 드러난 곳엔 이끼가 제일 먼저 자라난다. 이끼가 자라면서 다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야.

여학생 : 그렇군요. 이끼가 그런 역할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끼가 하는 역할이 또 있나요?

생물 선생님 : 그럼. 이끼는 평균적으로 자기 무게의 다섯 배 정도의 물을 저장할 수 있어. 특히 ‘이탄이끼’라는 이끼는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최고 스물다섯 배에 달하기도 하지.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땐 비를 저장하고, 비가 잘 내리지 않을 땐 저장했던 물을 내놓기도 한단다.

여학생 : 아, 선생님! 그러면 이끼가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되겠네요.

생물 선생님 : 그래. 맞아. 그 외에도 이끼는 상처를 감싸는 붕대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했어. 중국에서는 이끼를 식물기름과 혼합해서 습진이나 벤 상처, 화상 등을 치료하는 데 이용하기도 했지. 또 과거 유럽에서는 이끼를 침대의 속 재료와 건축 재료로 사용하기도 했고, 인디언과 에스키모 인들은 아기 기저귀를 만드는 데도 이용했단다.

여학생 : 와! 이끼가 다양한 용도로 유익하게 쓰이고 있네요.

3. [출제의도] 대화를 듣고 세부 정보 파악하기

대화를 통해서 이끼가 홍수와 가뭄 피해를 방지하고 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건축이나 생활용품의 재료로 활용되거나 의약품의 재료 및 상처 치료에 이용되었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공기 정화와 온도 조절 기능이 있다는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4~5번〉 이제 라디오 대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 여러분, 안녕하세요? 몇 년 전부터 대학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박물관을 개방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관계자 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 :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 교수님, 박물관을 개방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신데요, 그럼, 지역 사회에서 대학 박물관은 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나요?

교수 : 네, 대학 박물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소장품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나아가 관람자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죠. 특히 국립 박물관이 없는 지역이나 문화시설이 빈약한 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유익한 문화 활동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진행자 : 네, 대학 박물관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군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학 박물관 활용이 미흡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수 : 아직까지 많은 대학 박물관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과 프로그램이 일방적인 강의 위주로 진행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한 것도 하나의 이유지요.

진행자 : 아, 그런 문제점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대학 박물관이 지역 사회에서 교육 기관으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교수 : 무엇보다도 참여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지방의 어느 대학 박물관에서는 전통 문화 체험이나 서당 체험 교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박물관을 알리려는 홍보 전략도 마련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가령 ‘찾아가는 박물관’과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 박물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다른 대학 박물관들도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4. [출제의도] 라디오 대담을 듣고 세부 정보 파악하기

대학 박물관은 지역 주민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고 문화 활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홍보가 부족하고 일방적인 강의 위주로 진행된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 부족은 대학 박물관의 문제점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5. [출제의도]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대담에서 진행자는 ‘네, 대학 박물관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군요.’, ‘아, 그런 문제점이 있었군요’

요.’, ‘그렇군요.’라고 상대방의 발언에 공감을 표시한 후 이어서 상대방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쓰 기]

6. [출제의도] 자료를 보고 연상하기

농구 경기 장면에서 추출한 요소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작전을 지시하는 감독에게서 추출한 요소는 ‘계획’이므로 그것을 바탕으로 연상한 내용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리 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등의 삶의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①의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지닌다.’라는 내용은 ‘계획’이라는 추출 요소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적절한 연상이라고 볼 수 없다.

7.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쓰기

<보기>에 제시된 두 가지 조건은 내용적으로 ‘이용 시 주의할 사항’을 나타낼 것과 형식적으로 ‘대구’와 ‘대조’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⑤이다. ① 대구만 활용되었고, ② 대조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③ 대조, 대구가 활용되지 않았고, ④ 대구가 활용되지 않았다.

8.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평가하기

(가)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늘면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정 내에서 자녀 양육 문제는 여성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나)는 맞벌이 부부의 출산 기피를 요인별로 비교한 설문 자료로, 남편은 ‘가계경제’, 아내의 ‘자녀 양육’이 가장 큰 요인임을 보이고 있다. (가)와 (나)의 자료를 통해 여성이 자녀 양육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다는 정보는 확인할 수 있으나 그것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원인이라는 정보는 이끌어 낼 수 없다.

9. [출제의도] 개요를 바르게 수정하기

‘II-2-나’는 ‘디지털 교과서 사용 방법에 대한 체계적 교육 실시’를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교과서를 수업에 사용하는 초중고 교사의 비율’을 관련 자료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판단하기

①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할 때, 화제를 앞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그런데’가 적절하다. ② 문맥적 의미를 고려하면 ‘다짐했습니다.’가 적절하다. ③ 생각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종합하다.’의 의미이므로 ‘정리하고’가 적절하다. ‘정돈’은 ‘어지럽게 흩어진 것을 규모 있게 고쳐놓거나 바로 잡아 정리하다.’는 의미이다. ④ ㉠은 꿈을 실현하기 위한 현재의 노력과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한다. ⑤ ㉡은 ‘계속’과 ‘이어’의 의미가 중복되므로, ‘이어 갈’로 고친다.

11. [출제의도] 단어의 쓰임 파악하기

단어의 쓰임 가운데, 사물(또는 신체)의 부분이 전체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인 경우와, 전체가 부분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①, ②, ④, ⑤는 부분이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된 예에 해당하며, ③의 ‘장미’는 ‘장미 가시’의 의미로 사용되어, 전체가 부분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된 예에 해당한다.

12.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에 의거하여 발음하기

‘셋길’, ‘넷가’, ‘빨랫돌’은 ‘ㄱ, ㄷ’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오는 경우이므로 ‘셋길[새길]’, ‘넷가[내까]’, ‘빨랫돌[빨래돋]’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셋길[센길]’, ‘넷가[넛까]’, ‘빨랫돌[빨랫돋]’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뿔마루’는 사이시옷 뒤에 ‘ㄷ’이 결합된 경우이므로 ‘뿔마루[뿔마루]’로 발음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나뭇잎’은 사이시옷 뒤에 ‘이’소리가 결합된 경우이므로 ‘나뭇잎[나문닙]’으로 발음해야 한다.

[시가 복합]

[13 ~ 18] 시가 복합 제재

<출전> (가) 정희성,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나) 이육사, 「황혼」, (다) 작자 미상, 「가시리」

13. [출제의도] 공통점 파악하기

(가)의 화자는 당신이 부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당신을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현재 고향이라는 공간에서 황혼을 맞이하며 고독한 존재들을 포용하려 하고 있다. (다)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이라는 현재의 상황에서 임을 보내며 임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 따라서 (가)~(다)의 공통점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이다.

14. [출제의도] 시의 구조와 시상 전개 방식 파악하기

(가)시는 [A], [C]에서 당신과 내가 하나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B]에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된다. 또한 [C]에는 [A]의 ‘당신과 내가 하나 되는 상황에 대한 가정’이 반복되고 있어 [A]의 정서를 강조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5. [출제의도] 유사한 두 시어를 통해 화자의 정서 파악하기

㉠은 ‘당신’의 부재라는 개인적 상황에서 비롯되며, ㉡은 인간은 외로운 존재라는 인간에 대한 보편적 인식에서 비롯된다.

16. [출제의도] 제재를 중심으로 작품 감상하기

화자가 ‘뜨거운 입술’로 ‘황혼’의 손에 입 맞추려는 의도는 우주와 대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황혼을 맞이하여 의지할 데 없는 고독한 존재들을 포용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보기>를 통해 ‘황혼’은 아침의 여명처럼 시작과 끝이 융합하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화자가 ‘황혼’을 기다리며 내일도 푸른 커튼을 걸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의 여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7. [출제의도] 주제와 관련한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가)의 화자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당신’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들’의 꿈을 이루고자 하며, (다)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슬퍼하면서 임과의 재회를 소망한다. 이런 맥락에서 (가)의 화자가 이별의 고통으로 힘겨워 하는 (나)의 화자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말은, ‘현실이 힘들더라도 임과의 만남을 위해 참고 견뎌야 한다.’는 말이 적절하다.

18. [출제의도] 시어의 행동 주제와 의미 파악하기

‘잡스와 두어리마누’의 주체는 화자로, 입을 붙잡고 싶지만 잡지 못하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말이다.

[인 문]

[19 ~ 22] 인문 제재

<출전> 이철우, 「나를 위한 심리학」

19. [출제의도] 글을 읽고 미루어 알기

셀프 핸디캐핑은 과제 수행의 실패 원인을 모호하게 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나이가 어릴수록 셀프 핸디캐핑을 자주 사용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② 셀프 핸디캐핑은 친밀감이 높고 낮은 것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④ 마지막 문단에서 셀프 핸디캐핑은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을 덜어 주어 결국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셀프 핸디캐핑이 위치적 요인보다는 형태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

20. [출제의도] 핵심 요소 파악하기

셀프 핸디캐핑이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어떤 특성이 평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거기에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경우, 과제 수행을 방해할 불리한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내어 그 불리한 조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셀프 핸디캐핑은 본인에게 중요할수록, 그리고 자존심 같은 성격적 특성이 두드러질 때 일어나기 쉽다.

21.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 구분하기

[A]에서 심리학자 아킨과 바움가드너는 셀프 핸디캐핑을 위치와 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각각 내적 셀프 핸디캐핑과 외적 셀프 핸디캐핑, 획득적 셀프 핸디캐핑과 주장적 핸디캐핑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불리한 조건을 스스로 만든 것이므로 획득적 셀프 핸디캐핑에 해당한다. ① 운동을 소홀히 하는 것은 노력의 억제에 해당하므로 내적 셀프 핸디캐핑에 해당한다. ② 스스로 운동을 소홀히 하여 시험에서 우승할 가능성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획득적 셀프 핸디캐핑에 해당한다. ③ 합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대학은 곤란한 목표에 해당하므로 외적 셀프 핸디캐핑에 해당한다. ⑤ 두 사례 모두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핑계로 삼고 있다.

22. [출제의도] 글의 내용에 맞는 속담 찾기

셀프 핸드캐핑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먹기 좋고 편한 것은 그때 잠시뿐이지 정작 좋고 이로운 것은 못 된다.'라는 뜻의 '당장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와 내용상 가장 관련이 깊다. ①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실속 없는 사람이 겉으로 더 떠들어 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조금 주고 그 대가를 많이 받는다는 말이다. ④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내 돈 서 푼만 알고 남의 돈 칠푼은 모른다.'는 제 것은 소중히 여기면서 남의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기적인 사람을 비꼬는 말이다.

[시나리오]

[23 ~ 25] 시나리오 제제 <출전> 임희재 각색,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23. [출제의도] 영화의 장르적 특성 이해하기

안방과 사랑방이라는 분리된 공간에 위치한 선호와 정숙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만 정숙은 죽은 남편에 대한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제약 때문에 괴로워한다. 이런 내면의 갈등은 옥희가 정숙에게 꽃을 꺾어다 준 날 밤에 피아노를 치며 엎드려 흐느끼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S#86은 사랑방에서 어머니의 피아노 소리를 듣다가 잠든 옥희를 선호가 안아다가 정숙의 품에 안겨주는 장면인데 서로가 시선을 통해 애정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때, 대사를 냉정한 어조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4. [출제의도] 소재와 배경의 기능 파악하기

㉠은 정숙이 거처하는 공간으로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르던 정숙이 피아노에 엎드려 우는 모습을 통해 사랑과 사회적 금기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정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정숙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되찾는 공간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25. [출제의도] 시나리오 기법 이해하기

S#80은 시·공간적 배경이 낮과 안방으로 설정되어 있고, S#82는 밤과 사랑방으로 설정되어 있어 두 장면 사이에 시·공간적 비약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이어주는 S#81은 '컷 어웨이'(cut away)에 해당한다.

[과 학]

[26 ~ 29] 과학 제제 <출전> 이영해, 「물질계 만능엔터테이너, 초임계유체」

26. [출제의도] 각 문단의 세부 정보 파악하기

ㄱ과 ㄴ은 1문단에서, ㄷ은 2문단과 4문단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27. [출제의도] 제시된 시각 자료와 연관지어 내용 이해의 적절성 판단하기

<보기>의 A는 이산화탄소의 임계 압력과 임계 온도에 해당하는 임계점을 나타낸 것으로, 이때 이산화탄소는 초임계유체 상태가 된다. 초임계유체 이산화탄소는 점도와 표면장력이 낮아져서 추출하려는 물질에 통과시키면 물질의 미세 구멍에 침투하여 원하는 성분을 추출할 수 있다. 그러나 온도와 압력을 A보다 낮추면 이산화탄소의 상태가 바뀌게 되어 기체나 액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점도와 표면장력이 낮아지지 않는다.

28. [출제의도] 추론의 적절성 판단하기

[A]를 통해 극성 물질은 극성 용매에 녹고,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용매에 녹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극성을 가진 소금이 극성인 물에만 녹는 것처럼 무극성인 카페인이나 기름은 극성이 없는 이산화탄소로 녹여내야 한다. 결국, 물질의 극성에 따라 물질을 추출하는 용매가 달라지는 것이다.

29.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은 '정하여 세우다'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정립(定立)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성립(成立)하다'는 '일이나 관계 따위가 제대로 이루어지다'의 뜻이며, '설립(設立)하다'는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를 만들어 일으키다'의 뜻이며, '수립(樹立)하다'는 '국가나 정부, 제도, 계획 따위를 이룩하여 세우다'의 뜻이며, '건립(建立)하다'는 '기관, 조직체 따위를 새로 조직하다'의 뜻이다.

[사 회]

[30 ~ 33] 사회 제제 <출전> 김은미·양옥경·이혜영, 「다문화 사회, 한국」

30.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 파악하기

이 글에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다문화 사회 정책의 목표와 궁극적 지향점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관련 정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① 정책 목표는 '동화'가 아닌 '공존'에 두고 있으며, ② 다문화주의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외국인과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이중적 기준 적용의 문제를 해소하고 조화와 소통을 지향하기 위함이며, ④ 다문화 사회를 정의하는 패러다임은 차별 배제 모형, 동화 모형, 다문화 모형이고, ⑤ 다문화 모형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인종과 민족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다문화 모형을 통해 외국인이나 이민자가 그들만의 문화를 지키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여 '공존'하기 위함이다.

31.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한 사례 찾아보기

ㄱ. A국은 이민자들에게 A국의 언어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주류 사회와 똑같아져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도록 하는 경우로 동화 모형의 예에 해당한다. ㄴ. B국은 특정 경제영역에만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복지 및 사회적 영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로, 배타적인 모형인 차별 배제 모형의 예에 해당한다. ㄷ. C국은 이민자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지키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여 전체 사회의 조화를 추구하는 경

우로 다문화 모형의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문화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는 모두 다양한 문화적 가치들을 공유할 것을 강조하는 다문화 모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양한 문화적 가치 공유는 ㉠과 ㉡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다원주의가 다문화주의와 달리 주류 문화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이와 같은 맥락으로 다문화주의가 외국인이나 이민자 간의 대등한 관계를 중시하고, 외국인이나 이민자들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적극적이며, 두 모형의 공통점은 사회 전체의 공존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33.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는 '어떤 정도나 상태가 더 크거나 심하게 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와 가장 가까운 뜻으로 사용된 예는 ②에 해당한다. ①은 '더 보태어 늘리거나 많게 하다'의 의미로, ④는 '어떤 기준보다 정도가 심하거나 또는 그 이상이다'는 의미로, ③, ⑤는 '어떤 요소가 더 있게 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현대 소설]

[34 ~ 37] 현대 소설 제제 <출전> 한승원, 「앞산도 첩첩하고」

34.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이해하기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오달병)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서술 시점의 변화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① 심표를 사용하여 내용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면서 표현함으로써 오달병의 기구한 삶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③ 오달병과 장례의 대화에 방언을 사용하여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오달병이 덕도를 찾아와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에서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작품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덕도의 배경을 묘사하는 부분을 통해 오달병의 내면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35. [출제의도] 이야기의 구성 파악하기

<이야기2>의 {사건3}에서 오달병과 하모니카장이 사이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오달병과 하모니카장이의 외적 갈등이 원인이 되어 딸이 오달병의 곁을 떠나게 되었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36.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보기>에서 이 소설은 오달병과 그의 아내 장례의 운명, 그리고 그의 딸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로 볼 때, [A]와 [B]에서는 모두 오달병이 딸과 아내에 대한 생각 때문에 '앞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첩첩한디.....'라는 소리를 반복하여 부르면서 되풀이되는 가족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 한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 이해하기

㉞은 장례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하소연하면서 오달 병의 동정을 얻고 그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하는 의도를 표현한 것이지, 주위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언 어]

[38 ~ 40] 언어 제재
 <출전> 정희창, 「국어 준말의 연구」

38. [출제의도] 중심화제 파악하기

준말이 되는 과정에서 통사론적, 형태론적, 의미적 변화를 겪거나 준말로 굳어져 쓰이면서 의미가 변하는 경우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준말이 되는 과정에서의 변화 양상이다.

3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하여 사례에 적용하기

ㄴ의 ‘부끄럼’은 서술어의 자리에서 쓸 수 없다. 즉, ‘부끄러움’에서 ‘부끄럼’과 같이 준말이 되면서 통사론적 변화를 겪은 경우에 해당한다. ㄷ의 ‘소낙’은 의존형태소로서 합성어에서만 쓰인다. 즉, ‘소나기’에서 ‘소낙’으로 줄면서 자립할 수 있는 말이 의존적 속성을 지닌 말로 형태론적 변화를 겪은 경우라 할 수 있다.

4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찾기

㉞의 ‘좁’은 ‘조금’에서 준 말이지만, ‘조금’과 의미가 다르다. 즉, ‘적은 정도’를 뜻하는 ‘조금’이 ‘부탁이나 동의를 구할 때 간곡한 뜻을 더하는 말’을 뜻하는 ‘좁’으로 의미가 변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전 소설]

[41 ~ 44] 고전 소설 제재
 <출전> 작자 미상, 「최고운전」

41. [출제의도] 작품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 이해하기

공간 I은 ‘낙양의 대궐’, 공간 II는 ‘남해의 섬’, 공간 III은 ‘신라의 경내’, 공간 IV는 ‘가야섬’, 공간[A]는 ‘중국’, 공간[B]는 ‘신라’이다. 최치원은 중국 대신의 모함을 받아 남해의 섬으로 귀양가므로 남해의 섬은 스스로 선택한 공간이 아니며 타의에 의해 가게 되는 공간이다. 공간 I-2는 귀양에서 돌아온 낙양의 대궐로, 최치원은 중국 황제를 제압하고 우위에 서나, 신라의 경내에서는 신라왕의 명령에 복종하므로 두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대처 방식이 다르다 할 수 있다.

42. [출제의도] 동일 소재의 다른 의미 추론하기

㉠과 ㉡은 모두 최치원이 쓴 시로, ㉠은 도적 황소를 항복시키려는 시이며, ㉡은 안남국 사자를 통해 중국 황제에게 전달될 것을 예상하고 쓴 시이다. 그러므로 ㉠에는 설득의 의도가, ㉡에는 자기 존재를 알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 ㉠, ㉡을 통해 모두 최치원의 사회적 지위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과 ㉡은 모두 최치원의 정치적 포부를 좌절시키지 않는다. ㉢ ㉠은 신하의 의무에서 비롯되었으며, ㉣은 자발적 동기에서 창작되었다. ㉣ ㉠,

㉣은 모두 최치원의 뛰어난 문장력을 전제로 한다.

43.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하기

<보기>에 나타난 ‘서민의 역사의식’은 민족적 수모를 주인공의 영웅적 행동을 통해 풀고자 하는 정신이므로 중국에 대한 저항적이고 비판적인 민족정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최치원이 중국에서 관리로 등용된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44. [출제의도] 인물의 태도에 적절한 한자 성어 찾기

[가]는 온 천하가 자신의 발 아래 있다는 중국 황제의 발언으로, 최치원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중국 황제의 거만한 태도에 어울리는 말은 ‘안하무인(眼下無人)’이 적절하다. 이것은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이다. ㉡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事理)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 ㉣ 입에는 꿀이 있고 뱃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 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 ㉤ 얼마쯤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함

[예 술]

[45 ~ 47] 예술 제재
 <출전> 이주현, 「지식의 미술관」

45. [출제의도] 서술 방식 파악하기

첫째 단락에서 핵심 개념을 설명하고(㉢), 둘째 단락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작품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셋째 단락에 묻고 답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시각상과 촉각상, 시각상에 의존한 표현 방법과 촉각상에 의존한 표현 방법의 특성을 비교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내용을 부각하기 위해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46.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사례에 적용하기

㉠은 시각적으로 모순되더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어 대상을 묘사하는 표현 방법이다. ㄱ과 ㄴ은 시각적으로 모순되지만 대상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묘사한 것으로 촉각상에 의존하여 표현한 예라 할 수 있다. ㄷ에서 명암을 살려 입체감이 느껴질 정도로 세밀하게 묘사한 것은 시각적 사실성에 충실한 표현으로 시각상에 의존하여 표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ㄹ은 피카소가 신문 기사를 보고 기사 내용에서 상상하여 그린 것으로 시각상이나 촉각상에 의존하여 대상을 묘사한 그림이 아니다.

47. [출제의도] 문맥을 고려하여 세부내용의 의미 파악하기

㉣의 다음 문장을 보면, 어른이 아이보다 작게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어른이 키가 더 크기 때문에 어린 아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어른을 더 크게 그린다고 했다. 이는 촉각상에 의존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고, 어린아이가 이해한 대로 그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 술]

[48 ~ 50] 기술 제재
 <출전> 마셜 브레인, 「파일 압축의 원리는 무엇인가」

4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이 글은 파일 압축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파일을 압축하는 핵심 원리는 파일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제거하여 데이터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파일을 압축하려면 먼저 무엇이 반복되는 것인지를 찾고, 그 데이터 조각들을 목록화해야 한다. 이런 목록화한 사전에 계속 표제어가 추가되면 파일은 더욱 효율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표제어가 계속 추가될수록 파일의 효율적인 체계화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49. [출제의도] 핵심 원리 적용하기

<보기>의 문장은 ‘있고’, ‘있으면’을 제외한 5개의 데이터 조각들이 두 번씩 반복되고 있다. 이 문장은 ‘1=오는 2=세월이 3=가는 4=인생이 5=있다’로 목록화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문장을 압축하면 ‘1 2 있고 3 4 5. 3 4 있으면 1 2 5.’로 표시할 수 있다.

5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기

압축 프로그램은 반복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원리로 공간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의 도돌이표는 반복되는 악곡을 다시 표시하지 않는다는 기호이므로 압축 프로그램의 원리와 가장 유사하다. ㉢의 튜브의 바람을 제거하는 것은 공간을 줄인다는 점에서 압축 프로그램의 원리와 유사하나, 반복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